

1조원대 어등산관광단지 운명의 1주일

광주도시공사 “동시 착공” vs 호반측 “수익사업 먼저” 착공 시기 최대 관전... “9부 능선 넘어” 연내 타결 촉각

광주의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1조원대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최종 타결될 지, 해를 넘겨 장기 화될 지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발주처인 광주도시공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동시착공을, 우선협상대상자는 ‘선(先) 수익사업, 후(後) 공익사업’의 단계별 착공을 선호하고 있는 가운데, 발주처가 제시한 최종안을 놓고 우선협상자 측이 수지분석을 진행중이어서 협상 시

한인 울 연방안에 타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발주처인 도시공사는 지난 9월19일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주)호반을 선정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세부추진 일정,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중점으로 협의한 뒤 11월 19일까지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 타당성과 공공성 확

보 방안을 놓고 일부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기간이 12월말로 연장됐다.

대규모 레지던스 호텔 건립을 놓고 시민 휴양시설 조성이라는 당초 공익 목적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특정업체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호반측은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체육 오락시설 등 1조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제출해준 상태다.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우선 1655실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을 건립·분양하고 대규모 워터파크와 상가(2만4170㎡ 이하)를 조성해 수익을 얻은 뒤 공공시설 조성에 나서겠다는 게 호반 측 구상이다.

총 사업기간 5~6년 중 절반 가량을 수익사업에 투자해 안정적 수익 구조를 먼저 창출한 뒤 2단계로 5성급 특급호텔을 짓고 3단계로 체육공원과 청년창업지원센터, 아트센터, 야외공연장, 녹지공간 등 비수익 공공시설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반 시설비와 토지대금을 빼고 전체 사업비의 60~70% 가량을 1단계 수익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도시공사 측은 민간사업자가 수익시설인 골프장만 짓고 나머지 유휴지 부지는 10년 넘게 방치하면서 애초 사업자체가 표류한 뼈아픈 선례를 감안해 ‘선 수익, 후 공익사업’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수익 사업부터 한다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여론도 의식하고 있다.



광주시 구조·구급정책협의회 개최.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26일 오전 시청에서 위원장인 김조일 시 광주소방본부장, 대학교수,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원장 등 각 분야 전문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광주광역시 구조·구급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홍어 밧속 폐비닐 NO’ 전남도 해양쓰레기 제로화 시동

전담TF팀 구성·수거사업 예산 증액·체계 정비도

전남도가 오는 2022년까지 해양쓰레기 제로화에 본격 나선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밧속에 폐비닐이 가득한 홍어, 폐플라스틱을 먹은 바다거북 등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전남도는 김영록 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네가지 측면에서 해양쓰레기 Zero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해양쓰레기 발생의 사전에

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와 시·군, 유관기관, 단체 등이 참여한 전담TF를 구성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또 효율적인 수거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수매사업을 확대하고 어민들에게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실제 조업활동 중 수거된 쓰레기 수거사업은 폐어구·폐포프 100원/1, 통발어구 150~250원/개, 폐스티로폼 250원/kg 이나 내년에는 단위회계를 4억 5000만원을 늘려 총 15억 3400만원까지 증액한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전국화된 바닷가 지킴이 사업’을 확대(50명→100명)하고 수거 중심에서 수거와 감시·관리까지 기능을 개편한다.

연안 16개 시·군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연 2회에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시·군은 재정인센티브(2억원)와 도지사 표창도 실시한다.

현장 중심의 해양쓰레기 처리 확대를 위해 선상집하장 수거방식을 개선하고 50호 미만 소규모 도시의 쓰레기 수거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Up-cycling) 작품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 재건축아파트 매매 ‘운암주공 3단지’ 최다

올해 광주지역 일부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재건축 예정 단지의 거래도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전남 부동산전문 포털 사방방부동산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 재건축 대상 단지의 거래를 집계한 결과 가장 많은 매매가 이뤄진 단지는 북구 운암주공 3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현재 운암주공 3단지는 모두 176건이 매매됐다. 이어 광산구 신창동 부영사랑으로 3차가 147건으로 두 번째를 기록했고 북구 신용동 용동주공이 146건, 광산구 운남동 삼삼아파트 142건, 북구 신용동 한양수자인리뷰 135건 순이다.

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 광주가정법원 2018년 단 3502 상속특별한정승인
 사망자 : 신정례(280323-2552615)
 최후주소 : 광주 동구 남문로587번길 10 (운산동)

위망 신정례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8년 12월 27일

공고인 : 백선희, 백영두, 백운희, 백영국.
 주소 : 고양시 일산동구 고종로 72-11, 306동 202호 (풍동, 성원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18년 12월 19일
 공고기간 : 2018. 12. 27~ 2019. 2. 28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기장대리
- 양도상속증여
- 건설면허신청
- 기업진단
-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동 217호 (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실험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동구,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준공 개소

광주 동구는 26일 원도심 재활성화를 위한 ‘푸른마을공동체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명로67번길 29 일원에 들어선 ‘푸른마을공동체센터’는 연면적 2,228㎡ 부지에 지하층, 지상3층 규모로 ▲어린이 실내놀이터 ▲장난감도서관 ▲카페 ▲주민커뮤니티실 ▲다목적실 ▲공동작업장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갖췄다.

이중 1층에 들어서는 어린이 실내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은 미끄럼틀 등 놀이시설과 30여점의 장난감이 비치돼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3층에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품공유센터가 자리를 잡았다. 철물공구류, 캠핑용품, 행사용품 등 88종 300여점의 물품이 구비돼 있으며 동구 주민이면 누구나 대여가 가능하다.

서구, 평생학습관 동아리실 무료 대관 신청

광주 서구 두(Do) 드림(Dream) 평생학습관이 내년부터 평생학습동아리실을 무료 개방한다.

동아리실은 화정2동 주민센터 지하에 위치한 서구 두(Do) 드림(Dream)서구 평생학습관 내에 위치하며 26㎡(약 8평)으로 최대 16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또한 동아리 활동지원을 위해 빌드 프로젝트 컴퓨터, 책상, 의자, 공기청정기 등이 구비되어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11일까지로 서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365edu.seogu.gwangju.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서구 평생학습관(☎350-4973)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15일 오후 2시에 추첨을 통해 대상동아리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병내 남구청장, 인권 등 국민권익 증진상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인권 향상과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친 공로로 대한민국 인권대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은 한국인권신문 주관으로 지난 24일 서울 남에종예출실용전문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인권대상 시상식’에서 국민권익 증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병내 구청장은 올해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청년 및 여성, 노인 등 각 분야별 인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기적으로 인권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해 국민권익 증진 부문 수상자로 결정됐다.

북구, 2018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광주 북구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정부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가 혁신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기관 실정에 맞게 실행할 수 있도록 혁신 추진기반 주민참여 확대, 일하는 방식 혁신 등 5개 항목 11개 지표에 대해 정부혁신·국민평가단의 서면 및 집합점검 등의 심사로 이뤄졌다.

광산구, 우리밀 판로 확보에 적극 나서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우리밀 수매 총 예산은 100억 원. 여기에 광산구는 내년 2월, 강원도와 경기도 군부대에 우리밀 500톤(약 10억 원)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우리밀 재고량은 1만8000톤으로 광산구에 1만톤이 집중돼있다. 광산구 노력 등에 힘입은 정부의 수매제 부활로 소비될 것으로 예상하는 우리밀은 1만5000톤. 한계 상황에 다다른 우리밀 재고 문제가 사실상 해결된 것이다.

또한, 광산구는 우리밀 선도 도시로서 우리밀 농가와 업체를 위해 2019년도에 소비촉진 홍보와 연구개발비 등 지원 사업(총 3억 원)을 확대하여 우리밀 소비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광고문의 : 062-224-5800
- 기사제보·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